

“미안마 돕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

화순전남대병원서 ‘미안마의 전쟁’ 사진전

강면구·고의태 등 작가 6인 참여
군부 진압 전 미안마 풍광 등 전시
하루 속히 평화로운 일상 회복 기원
작품 판매수익 미안마 돕기 전액 기부

군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미안마를 돕기 위해 지역 사진작가들이 뜻을 모았다.

사진전 ‘미안마의 전쟁’이 오는 4월 30일까지 화순 전남대병원(원장 신명근) 1층 전시공간에서 열린다. 사진전에서는 강면구·고의태·박준형·박인호·안상희·진봉진 등 지역 사진작가 6명이 찍은 20여점의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

이들은 지난 2017년 ‘미안마를 사랑하는 모임’(회장 강면구)을 결성하고, 미안마를 방문해 현지 모습과 명소들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2016~2019년 미안마 양군



과 만달레이, 혜호 등지에서 촬영한 평화로운 풍경이 담긴 작품들을 출품했다. ‘불교의 나라’라는 별칭에 걸맞게 웅장한 사원과 기도하는 승려들, 순박한 현지인 모습과 농어촌 일상, 신비로운 자연 풍광 등이다. 작가들은 이번 사진전을 통해 군부의 폭력으로 얼룩진 지금과는 사뭇 다른 미안마 옛 정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안마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작가들은 사진과 사진첩 판매 수익금 전액은 미안마인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다.

박인호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장은 “매년 찾아갔던 미안마는 평화롭고 자유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는데, 시민 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현상황은 80년 ‘5월 광주’를 떠올리게 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하루 속히 민주화와 평화가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강면구 회장은 “화순은 1980년 당시 전남권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곳이자 ‘민주인권운동의 대부’ 홍남순 변호사와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의 고향”이라며 “한국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곳에서 열리는 전시회인 만큼 뜻깊다. 미안마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농협 구례교육원,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대상 수상



농협중앙회 구례교육원(원장 배성화·오른쪽)은 지난 22일 ‘제3회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구례교육원은 지난해 4월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임시치료시설을 제공하고 구례 수재민에 임시 거주공간을 내줬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마음심리연구소와 협약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는 최근 마음그림심리상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힘써 나갈 것을 약속했다.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제공>

호남통계청, 혈액 수급난 해소 단체 헌혈 실시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사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단체 헌혈을 최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호남통계청 직원들은 부서별 시간대를 나눠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마스크 착용·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를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이호석 청장은 “많은 직원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헌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중 기자 bhj@kwangju.co.kr

나주 금성고 학생들, 아동권리 보호 후원금 전달

나주 금성고등학교(교장 서남열)가 최근 지역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후원금 20만원을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에 전달했다. <사진> 금성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서남열 금성고등학교장, 정유선 금성고등학교 교사, 이주원 금성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참석했다.

금성고등학교 학생 자치회는 학교 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모아 후원금을 마련했다. 후원금은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서남열 교장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꾸준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성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주원 금성고등학교 학생회장은 “학생 자치회에서는 자년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 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의미 있게 사용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조달청장, 기술혁신 증기 방문



이 기업은 가설교량 부문에서 다수 기술 특허를 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백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중 기자 bhj@kwangju.co.kr

백호성<사진> 광주지방조달청장은 23일 장성 가설교량 설치 전문기업 지엠플기술주식회사(대표 윤인구)를 방문했다. 백 청장은 방문 현장에서 공공 조달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수목미니리리즈 오! 주인님 프리미어(재)	10 SBS 뉴스특보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숨터	00 안녕? 나야(재)	15 아무튼 출연 스페셜 5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애니 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하나와 숲속친구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재) 50 뽀뽀뽀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45 내모세모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백투더지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불편해도 괜찮아(재)	20 영성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열린채널			00 뉴스브리핑
3	10 역사저널 그날(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UHD 환경스페셜(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행복설계 알짜배기(재)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수상한 의뢰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PD수첩(재)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테라스페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이리 오나라 조선클럽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테크	50 SBS 8 뉴스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오! 주인님	00 나의 판타지
10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라이브	40 트롯 전국체전 (스페셜 갈라쇼)(재)	30 라디오스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2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스튜디오 K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오! 주인님(재)	10 나이트라인 40 닥터 365 45 광주형 3대 뉴딜 대장좌(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핑크 07:30 뽀뽀뽀 뽀로로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8:00 당동당 유치원 08:30 고고다! 우리 동네 농땡 08:45 위인극장 리턴즈 09:40 우리집 유치원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2:25 지식채널e 12:30 클래스 e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3:55 EBS 초대석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15 올리엔 문 16:30 당동당 유치원(재) 16:50 해와 해와 17:00 EBS 뉴스 17:20 마사와 꿈 17:30 모아라 당동당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19:30 자이언트 팽TV 19:45 바닷가 사람들(재)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폭 집어 썩 아시아 -중국 황귀수 특보> 21:30 한국기행 <어쩌다 미술관 3부 대문 밖 갤러리> 21:50 EBS 다크프라이미 22:45 극한직업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23:50 클래스 e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4일(음 2월 12일 辛未)

子 36년생 상대의 안색만 봐도 쉽게 인식하리라. 48년생 대응 관계에 놓이게 된다. 60년생 소신을 바탕으로 한 주관이 절실한 때이다. 72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지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84년생 직관에 따르더라도 무리는 없다. 96년생 다방면으로 고려한 후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본다. 행운의 숫자 : 22, 62	午 42년생 활발적인 변수가 보이니 기민하게 대처해야겠다. 54년생 규칙적이야만 현상을 감당하게 된다. 66년생 생산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형상이다. 78년생 가만히 지켜보고 있노라면 진면목을 목도하게 되리라. 90년생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고민을 하게 되리라. 02년생 무작정 버티기 만한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2, 98
丑 37년생 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파하지 말라. 49년생 소홀 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61년생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73년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다. 85년생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97년생 지리멸렬 해왔던 일들이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행운의 숫자 : 04, 90	未 43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셔야 한다. 55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67년생 옛 인연을 소중히 여김이 바람직하다. 79년생 풍부한 식견과 다각적인 고찰이 절실하다. 91년생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3년생 차 일들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38, 66
寅 38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50년생 직접 체험하는 것이 낫다. 62년생 계속적이야만 실 효성을 띠게 된다. 74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86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98년생 끌려 당하지 말고 주체적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67, 77	申 32년생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만한 중대사가 전개 되리라. 44년생 지금 확실해 해 뒤야 할 필요가 있다. 56년생 강풍이 몰아치니 비바람부터 피하고 보아야 한다. 68년생 길은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 80년생 안주하려 하지 말고 변화를 시도해 보라. 92년생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불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1, 85
卯 39년생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낼 수다. 51년생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63년생 유동적인 변수가 매우 크므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염두에 두자. 75년생 행하지 않아야 후회하지 않는다. 87년생 망설임보다는 예상되었던 궤도를 이탈하리라. 99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8, 80	酉 33년생 상호간에 불기반의 관계에 놓여 있다. 45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특수한 상황이 처하게 될 수도 있다. 57년생 막힘없이 소통되어야 지장을 받지 않는다. 69년생 간접적인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81년생 기존의 흐름을 파격적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괜찮다. 93년생 두루 살펴보고 판단해야 후회가 없다. 행운의 숫자 : 07, 60
辰 40년생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52년생 실리 위주로 바라보는 것이 옳다. 64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76년생 실질적으로 준비해 왔다면 매사가 순조로울 것이다. 88년생 진행되는 속도는 더딜지언정 뜻하는 바는 이루어질 것이라. 00년생 망설임만 걸림돌에 넘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89	戌 34년생 재물이 나타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라. 46년생 상당한 성과가 있다. 58년생 절제 할 줄 알아야만 자유로운 운동이 가능하리라. 70년생 과거에 했던 그대로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82년생 파장을 했다하더라도 손질이 가야 결실에 이르리라. 94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86
巳 41년생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계획대로 진행하라. 53년생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된다. 65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변수를 안고 있다. 77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다. 89년생 미루어 왔던 것을 진행하기에 시의적절하다. 01년생 금근도 안팎이 있으니 행운의 숫자 : 19, 64	亥 35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47년생 선의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이다. 59년생 계획 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 될 것이라. 71년생 형극이 마음에 들지 않으리라.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기쁨이 넘치리라. 95년생 소신껏 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39, 55